

긍정적인 미국 원유지표 효과는 언제까지?

▶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원유/쿠싱 재고 2주 연속 감소 시현. 정유사 가동률 상승도 긍정적 해석 가능. 또한 EIA는 20/21년 美 산유량 지속 하향 조정 중. 다만 단기 지표와 반발매수 호재가 유가 상승 지속 견인할 지는 의문

올 1월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감소한 미국 원유재고



자료 : EIA,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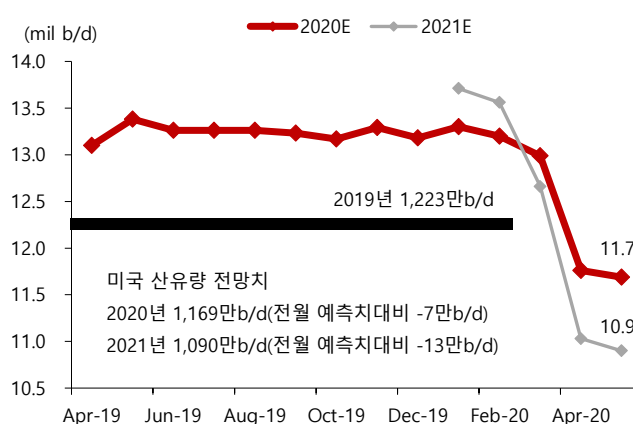
• 한 때 마이너스까지 진입해 시장을 경악시켰던 WTI 가격이 최근 \$30/bbl 선을 넘어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

• 때마침 美 석유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. 원유재고가 2주 연속 하락했는데, 이는 4개월 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. 감소폭도 -500만b/d로, +180만b/d라는 전망치를 큰 폭 하회했습니다

• 뿐만 아니라 한 때 재고탱크가 다 찼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던 쿠싱지역 재고도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게다가 하락 폭도 전주보다 더 크게 나타났네요(전주 -300만b/d, 금주 -559만b/d)

• 게다가 미국 정유사 생산이 증대되면서 재고가 감소했다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소식입니다. 정유사 가동률은 69.4%로 4월 이후 낮은 수준은 유지되었지만, 전주 67.9%보다는 올랐으니까요

2020년과 2021년 산유량 전망치도 지속 하향 중



자료 : EIA, SK증권

• 게다가 산유량 전망치 또한 낮아졌습니다

• EIA가 월간 발표하는 STEO(Short-Term Energy Outlook)를 보면, 2020년 산유량 전망치는 1,169만b/d로 MoM -7만b/d 추가하향 되었습니다. 2021년 전망 또한 1,090만b/d로서 MoM -13만b/d 추가 하향되었구요

•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치를 낮추기 시작했는데, 결국 2020년과 2021년 모두 2019년 1,223만b/d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

• 결국 이런 모든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현재의 유가를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

• 다만 유가가 계속해서 강세일지는 의문입니다. 단기 상승폭이 큰 데다, 5대 메이저의 total cost를 넘어선 레벨이고, 게다가 2Q 지표 충격이라는 악재가 목전에 있으니까요. 보수적으로 볼 시점입니다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•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